



## ‘저도 먹습니다’

‘저도 먹습니다. 이렇게요!’ 화학간장을 만든 회사 사장은 화학간장을 먹는다. 라면회사 사장은 라면을 자신 있게 먹는다. 유해표백제 투성이 토란·연근을……

조선일보 만물상(萬物像)에서

어떤 제품회사사장이 자사(自社)제품을 들고 나와 손수 PR을 하는 텔레비전 광고가 있었다. 하나는 책이고, 하나는 건축물의 내장(內裝)재료였다. 그「사창 손수 출연 광고」가 건축자재나 책이 아니고 식품이었다면 더욱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을 텐데...「저도 먹습니다. 이렇게요」

화학간장을 만든 회사 사장은 화학간장을 먹는다. 라면회사 사장은 라면을 자신있게 먹는다. 유해(有害)표백제 투성이 토란·연근을 파는 백화점 대표이사는 그 토란, 그 연근을 시범을 하듯 직접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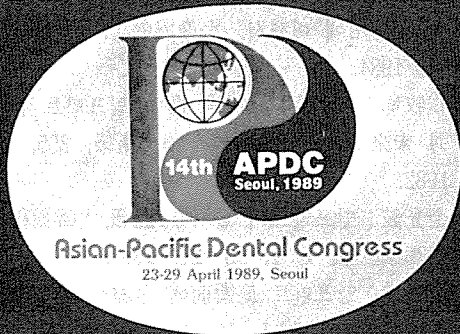
「시판(市販)고추장 절반이 가짜」라는 기사가 어제 오늘도 신문지면을 크게 차지했다. 그런 가짜 고추장은...손수는 결코 먹지 않을 테니까, 소비자의 이름으로, 그 고추장공장 사장에게 꼭꼭 퍼먹인다.

어떤 사장은 자신있게 먹을 것이고 어떤 사장은 주저하며 먹을 것이고, 어떤 사장은 꼭꼭 퍼먹이려 해도 죽어도 먹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는 사장 자신이 자신있게 먹는 회사의 식품만을 사 먹으면 된다. 그러나 그런 식품

광고는 아직 없고, 또 있더라도, 텔레비전 광고에서 사장이 손수 먹는 고추장과 그 회사 상표를 붙인 시판(市販)고추장의 동일성(同一性)을 믿기조차 어려운 풍토가 되었다.

유해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死刑)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마침내 현행「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최고형의 칼까지를 뽑아든 것이다. 자사제품은 죽어도 먹을 수 없고 먹지도 않을 식품회사 사장을, 정부가 제도라는 큰 칼로 죽여준다는 비상한 결단을 보는 것도 같다.

식품제조·판매로 돈을버는 두 가지 장사법이 있다. 하나는 저도 안먹는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부당이득으로 벼락부자가 되는 상법이다. 하나는 맛 좋고 품질 좋은 식품을 만들어 소비자가 구름떼처럼 물러들게 해서 알부자가 되는 상법이다. 언젠가 일본에서는 맛도 있고 머리도 좋아지는「大學特製 두부」가 나온다는 뉴스가 있었다. 맛있고 머리 좋아지고, 잘 팔려서 알부자도 되고, 그래서 사형조목이 사문화(死文化)하는 식품, 우리식품.



1989년 서울 제14차  
아세아·태평양 치과회의  
Symbol마크